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투자자들, 코로나 19 회복 기대감에 亞 통화 선포지션 대부분 축소
 - ◇ (초점)-은행권, 3월 시장 변동성에 리스크 한도 관리 '난감'..스왑 변동성 더 키우나
 - ◇ (칼럼)-신임 금통위원 매파·비둘기파 분류 의미없어..지금은 모두가 '위기극복파'
 - ◇ (시장진단)-코로나 19 호재 반영 분주한 코스피..외인 31일 만에 귀환한 배경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가정에서 산모가 출산 직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산모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 속에 집에서 출산하기로 했다. (로이터/캘러한 오헤어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17.9	1.1%	-5.0%	-3.5%	유로	1.0876	0.6%	-3.0%	-2.3%
100엔 대비	1,130.9	0.7%	-6.1%	-4.4%	엔	107.51	0.9%	1.0%	0.9%
유로 대비	1,322.2	1.0%	-2.2%	-1.3%	위안	7.0820	0.0%	-1.7%	-1.3%
위안 대비	171.89	1.3%	-3.6%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4,242.49	15.2%	-15.1%	22.3%
코스피	1,914.53	11.0%	-12.9%	7.7%	나스닥	8,650.14	17.3%	-3.6%	35.2%
코스닥	634.79	10.8%	-5.2%	-0.9%	S&P500	2,874.56	15.5%	-11.0%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68.53	9.4%	-15.2%	15.8%
국고채 3Y	1.006%	-6.0bp	-35.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19%	-11.0bp	-26.1bp	-40.4bp	미국채 2Y	0.202%	-2.5bp	-135.9bp	-93.7bp
국고채10Y	1.438%	-11.0bp	-24.5bp	-26.5bp	미국채 10Y	0.642%	4.2bp	-126.8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18.27	-35.5%	-70.1%	34.5%	한국 5Y	29.2bp	-11.8bp	8.1bp	-17.0bp
금(현물)	1,684.19	4.2%	11.0%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47.18	-1.1%	-13.6%	4.8%	중국 5Y	41.7bp	-18.1bp	11.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20일(월)>

- 한은,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00)

<21일(화)>

- 산업부/관세청,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 기재부, 1차관 국내 수출입기업 CFO 조찬간담회 개최(10:30)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12:00)

<22일(수)>

- 한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23일(목)>

- 한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08:00)
- 한은,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12:00)
- 기재부,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17:00)

<24일(금)>

- 특이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20일(월)>

- 일본, 3월 수출입 (08:50)
- 일본, 3월 무역수지 (08:50)
- 중국, 4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 5년물 (10:30)
- 유로존, 2월 경상수지 (17:00)
- 유로존, 2월 무역수지(18:00)
- 미국, 3월 전미활동지수(21:30)

<21일(화)>

- 호주, 호주중앙은행(RBA) 4월 정책회의 회의록 발표(10:30)
-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23:00)
- 브라질 휴장

<22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2월 주택가격(22:00)
-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23:00)

<23일(목)>

- 일본, 4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09:30)
- 유로존, 4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17:00)
- 미국, 3월 건축허가 수정치(21: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22:45)
- 미국, 3월 신규주택판매(23:00)

<24일(금)>

- 미국, 4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00:00)
- 일본, 3월 전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08:30)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21:30)
-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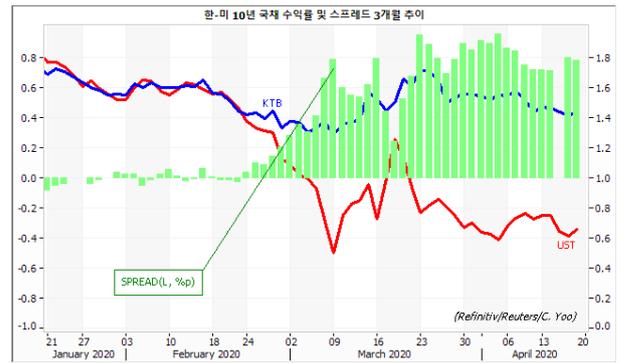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국제 금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 19) 공포를 떨쳐내는 과정에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05-1230 원이다.
- 코로나 19의 위력은 여전하지만, 정점을 넘어서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타진하고 있어 시장 심리는 꿈틀거리고 있다.
- 다만 이번 주는 코로나 19 여파로 급격하게 위축됐을 실물경제 지표와 함께 기업실적 결과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 온 스위치가 강하게 켜질지는 미지수다.
- 미국과 유럽의 4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결과와 함께 국내에서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와 1분기 경제 성장률(GDP) 속보치가 주목된다.
- 다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도 충격적인 실물경제 지표에는 대체로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제 지표 악화 등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이에 대해 내성을 쌓은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 하지만 달러/원에 대한 저점 매수세는 여전하다.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기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능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 19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은 잦은 변동성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큰 틀에서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코로나 19 확산 속도와 위험자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임 전망이다.
- 시장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발발 이후 나타났던 패닉에선 벗어나는 모양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규모 국채발행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 이 과정에서 실제 금리의 방향은 중앙은행이 어느 쪽 만기 채권 위주로 매수했느냐에 좌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국채금리 방향이 그랬다. 국내시장을 돌아보면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모든 만기에 고르게 집중되고 있다. 장기물 물량 부담은 그대로인 만큼 커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틱되는 게 맞아 보인다.
-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번주 커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에 50만원씩 지원할 경우 예상 적자국채 발행은 3조 5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진행 방향, 한은의 시장안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변동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23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코로나 19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열릴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기간산업 대책, 고용진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이번 방안의 재원 마련 방안도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POLL)-투자자들, 코로나 19 회복 기대감에 지난 2주간 亞 통화 숏포지션 대부분 축소

(로이터)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치가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 2주간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숏포지션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제한 조치와 대규모 부양책이 코로나 19 확산 둔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4명은 여전히 코로나 19 우려 속 모든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연준과 지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투입과 함께 숏포지션 축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대한 숏포지션은 3월 초 이후 최저치로 줄었다.

중국 위안에 대한 숏포지션 역시 작년 12월 초 이후 저점으로 감소했다.

웨이 리양 DBS 은행 매크로전략가는 "시장은 올해 부양책이 크게 늘 것으로 믿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해낸 한국과 대만의 통화들에 대한 숏포지션은 3월 초중반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정부가 5월 초까지 외출제한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인도 루피에 대한 숏포지션 역시 소폭 감소했다.

로이터는 9개 아시아 신흥국 통화(중국 위안, 한국 원, 싱가포르 달러, 인도 루피, 대만 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페소, 말레이시아 링깃, 태국 바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재 시장 포지션을 조사해 발표한다.

순 롱 포지션/순 숏 포지션은 ±3을 범위로 측정되며, +3은 미국 달러에 상당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DDMM	CNY	KRW	SGD	IDR	TWD	INR	MYR	PHP	THB
16/4	0.26	0.71	0.32	0.86	0.19	1.14	0.74	0.23	0.63
02/4	0.67	0.95	0.80	1.55	0.38	1.25	0.85	0.39	1.01
19/3	0.57	1.22	1.18	1.57	0.18	1.22	1.14	0.56	1.23
05/3	0.13	0.67	0.50	0.73	-0.31	0.63	0.56	-0.18	0.93
20/2	0.52	0.74	1.06	-0.54	0.06	0.10	0.34	-0.30	0.75
6/2	0.34	0.61	0.67	-0.60	0.03	0.12	0.01	-0.15	0.37
23/1	-0.45	-0.22	-0.50	-0.86	-0.85	-0.05	-0.39	-0.43	-1.05
9/1	-0.55	-0.13	-0.56	-0.49	-0.63	0.40	-0.24	-0.23	-1.04
5/12	0.18	0.39	-0.30	-0.35	-0.63	0.44	0.25	-0.62	-1.19
21/11	-0.11	-0.37	-0.71	-0.41	-0.84	0.31	0.11	-0.64	-1.08

(달러 대비 포지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은행권, 3월 시장 변동성에 리스크한도 관리 '난감'..스왑 변동성 더 키우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3월 펼쳐진 역대급 변동성 장세로 은행별 '발생가능 최대손실금액 (VaR)'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후폭풍을 날고 있다.

리스크 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고객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4월에도 여전히 변동성 보이는 FX 스왑·크로스 시장

FX 스왑과 크로스 시장은 4월 들어서도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X 스왑시장의 경우 최근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고 리보금리 상승세가 꺾였음에도 여전히 오퍼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달러를 외화대출을 통해 은행권에 풀고 있음에도 시장 분위기가 돌지 않고 있다.

크로스 시장 역시 역동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FX 스왑시장에 기본적으로 연동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방향성을 예상하는 게 거의 무

의미미할 정도로 양방향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10bp 변동성은 기본이다.

이같은 스왑시장 움직임은 4월 들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주식, 채권, 외환시장과는 대조적이다.

▲3월 변동성 반영된 VaR..뻘뻘해진 은행 리스크 한도 관리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은행들이 리스크 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몰아친 후 은행별로 VaR가 크게 상향 조정된 게 운용역들의 포지션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VaR는 은행별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의미한다. 은행내 리스크관리 부서는 트레이딩 거래에 대해 목표기간 동안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을 부여하고 운용자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트레이딩부서가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VaR가 높아진 건 3월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금융위기급 태풍이 몰아친 지난 3월 한 달 동안 1년 FX 스왑포인트의 경우 고점과 저점의 변동성이 3000 전에 달한다.

통상 일중 VaR는 1년래 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 결정되는데 3월 시장 이후 '최악'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다. 3월 변동성을 반영해 VaR가 높아진 만큼 델타(기초 자산 가격이 기준 단위만큼 변동할 때 파생금융 거래의 가격 변화량)가 늘수록 리스크 한도는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스왑딜러는 "3월에 워낙 큰 장이 오다 보니 최근 VaR 한도가 크게 움직였다"며 "3월 변동성을 감안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기존 포지션의 절반만 써도 리스크 한도를 이전만큼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 입장에서 VaR 한도가 변한 만큼 포지션을 운용할 때 여유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들 달라진 VaR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 물량 나오면 떠는 은행들..공격에 쉽게 노출

은행들의 리스크 한도 관리가 뻘뻘해지는 만큼 고객 물량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리스크 한도 때문에 고객 물량을 받은 후 전전긍긍하는 운용역들이 많다 보니 시장 쏠림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B은행 자금운용팀장은 "지금은 조금만 포지션을 열어도 리스크 한도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상황"이라며 "헤지펀드든 보험사든 물량을 받은 후에 처리를 못하고 오버나잇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레벨과 관계 없이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일방적으로 자산스왑만 받거나 부채스왑만 받는 곳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가령 부채스왑이 전혀 안 되는 은행이 자산스왑을 많이 받을 경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은행 스왑딜러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자산스왑을 받든 부채스왑을 받든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내가 자산스왑을 받으면 오퍼가 없어지고 부채스왑을 받으면 비드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솔직히 방향성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VaR의 문제는 은행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리스크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는 상당 부분 여유를 가지고 운용한 이자율데스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D은행 자금운용팀장은 "자기 포지션 한도를 100% 다 쓰는 딜러는 없다"며 "원래부터 VaR 한도의 70% 이내에서 배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리스크 한도 여유가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너무 뻘뻘하게 운용했던 곳들은 포지션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칼럼)-신임 금통위원 매파·비둘기파 분류 의미없어..지금은 모두가 '위기극복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 16일 발표된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들에 대한 면면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건 고승범 위원의 연임이다.

행시 28 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재경부, 금통위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의 고 위원을 한은이 추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고 위원이 지난 4년간 매파, 비둘기파라는 기존의 성향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스탠스를 조정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임기 초반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고 위원은 2018년 중반 이후 금융안정론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고 2018년 말 기준금리 인상에 한 표를 던졌다. 하지만 2019년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국내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때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경기 회복 기미가 뚜렷이 나타난 지난해 말부터는 다시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펴왔다.

임기 동안 중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면서도 특정 논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던 고 위원의 행보는 현재 한은 집행부의 스탠스와 겹쳐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한은 집행부 역시 최근 들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실물경제 위기 앞에서 그동안 스스로를 옹아왔던 여러 논리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시장참가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거시경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한은의 유연한 스탠스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고승범 금통위원에 대한 추천이 이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신임 금통위원으로 추천한 조윤제 현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주상영 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서영경 현 경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

셔티브(SGI) 원장 역시 현 시점에는 딱히 매파, 비둘기파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 듯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꼽히는 조윤제 교수나 금융위 추천을 받은 주상영 교수의 경우 비둘기파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주 교수의 경우 최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여력 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낫다"며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정도이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조치도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국제통화를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어서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경기회복을 바라는 글로벌 투자자들마저 비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장의 경우 한은 출신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가안정 도그마에 빠져 있는 기존 인사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한은 출신치고 정부, 기업계 인사들과 왕성한 교류를 해오면서 상당히 열린 마인드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서 원장은 "한은과 대한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에 금융과 민간의 관점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채권시장참가자들은 지난 4월 금통위 회의 당시 이주열 총재의 '변신'에 놀랐다고 이야기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펴겠다는 그의 의지가 색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 총재는 한결 같았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지난 5년의 임기 중 이 총재는 한결 같은 매파가 아니었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의 스탠스를 바꾸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총재를 매파라기보다는 '뒤통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금통위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떨든 당분간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태풍에 대응

해야 한다. 현 시점엔 어느 금통위원이든 '위기극복 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시장진단)-코로나 19 호재 반영 분주한 코스피..외인 31 일 만에 귀환한 배경은

서울 (로이터) 이지훈·박예나 기자 - 코스피가 약 한 달만에 1900 선을 탈환하며 회복 탄력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3% 넘게 급등했다. 전날까지 30 거래일 연속 줄기차게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들도 4 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올해 세계 경제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암울한 전망 이후, 부진한 국내외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날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과 통화들을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MSCI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가 3월 이후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코스피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900 선을 회복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이상 급등 중이다.

▲ 기대 선반영하는 시장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째 20명대에 머물고, 미국에서도 확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19 공포는 물러서는 양상이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 실험용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발표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단계적 경제 재가동 방안을 발표해 경제 활동 정상화 기대감을 키우는 등 코로나 19 관련 호재성 소식들이 시장심리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영환 KB증권 선임연구원은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길리어드 치료제 기대감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이유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황 기대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업체 TSMC 1분기 순익은 전년비 약 90% 증가해 시장 전망을 웃돈 가운데 반도체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이날 TSMC 주가는 6% 급등 중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TSMC에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데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생겼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 없겠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생기면서 간밤 미국 시장도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음 시나리오는

코로나 19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아울러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막닥뜨려야 하는 만큼 아직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을 저울질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감에 추락했던 이전 흐름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함께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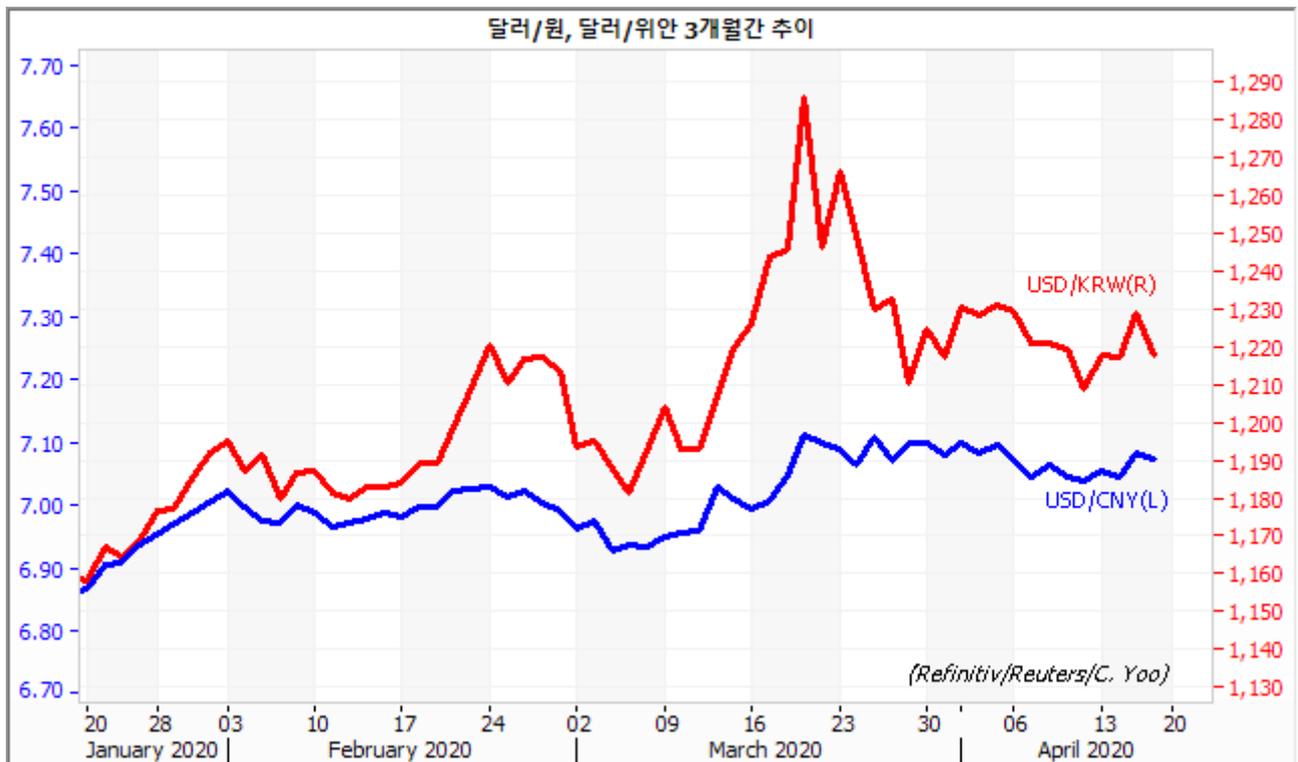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인 것은 맞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그간 주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조금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크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기술적 반등 수준은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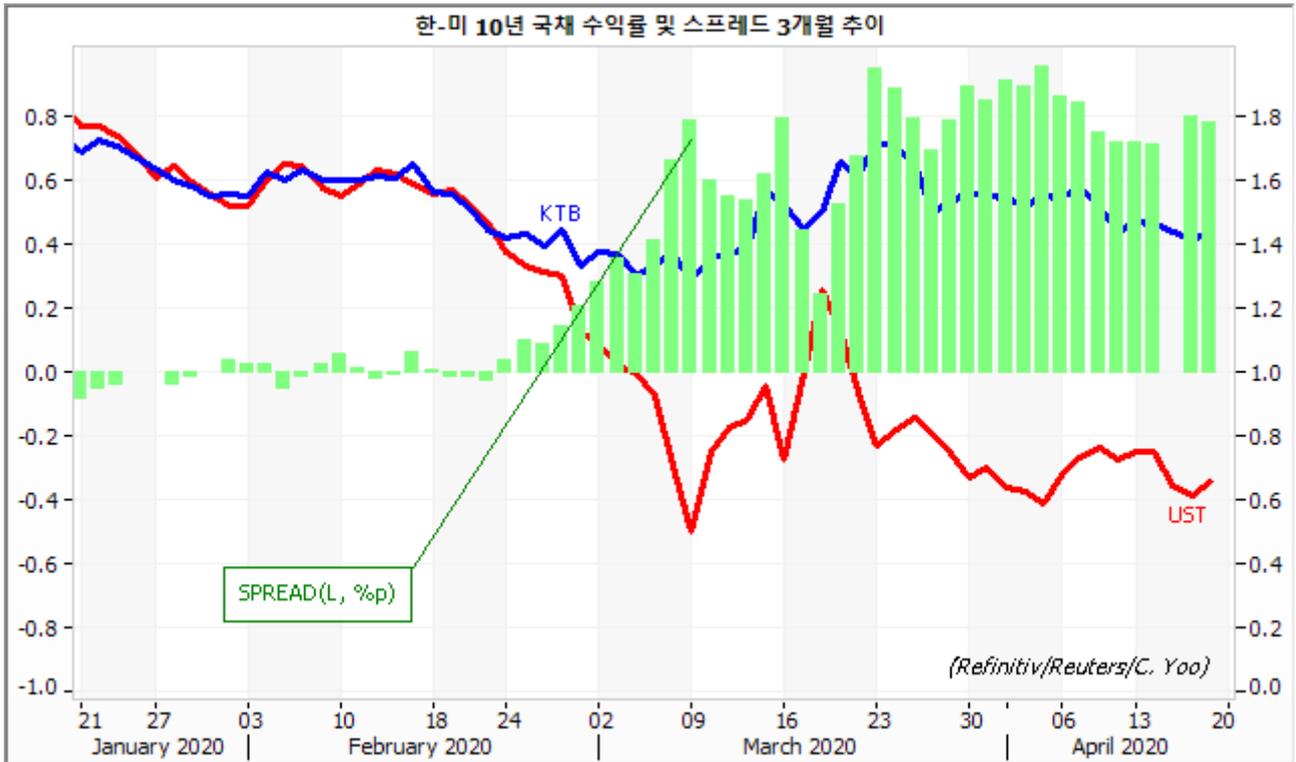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DDMM	CNY	KRW	SGD	IDR	TWD	INR	MYR	PHP	THB
16/4	0.26	0.71	0.32	0.86	0.19	1.14	0.74	0.23	0.63
02/4	0.67	0.95	0.80	1.55	0.38	1.25	0.85	0.39	1.01
19/3	0.57	1.22	1.18	1.57	0.18	1.22	1.14	0.56	1.23
05/3	0.13	0.67	0.50	0.73	-0.31	0.63	0.56	-0.18	0.93
20/2	0.52	0.74	1.06	-0.54	0.06	0.10	0.34	-0.30	0.75
6/2	0.34	0.61	0.67	-0.60	0.03	0.12	0.01	-0.15	0.37
23/1	-0.45	-0.22	-0.50	-0.86	-0.85	-0.05	-0.39	-0.43	-1.05
9/1	-0.55	-0.13	-0.56	-0.49	-0.63	0.40	-0.24	-0.23	-1.04
5/12	0.18	0.39	-0.30	-0.35	-0.63	0.44	0.25	-0.62	-1.19
21/11	-0.11	-0.37	-0.71	-0.41	-0.84	0.31	0.11	-0.64	-1.08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